



“서브넵, 5월엔 힘 좀 내다오”

“한국투수들은 인터벌이 너무 짧아요”, “광주구장은 역풍이 불어 타구가 잘 뺄질 않아요”

야구 전문 분석가의 말이 아니다. 최근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는 KIA 타이거즈 용병 타자 서브넵(30·사진)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서브넵의 이러한 변명이나 변명을 고운 시선으로 보는 이는 없는 듯 하다.

KIA의 한 코칭 스텝은 “그냥 적응이 잘 안된다고 하지, 구장 역풍까지 핑계를 대니 가끔은 알기도 하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서정환 KIA 감독도 답답한 듯 지난달 30일 삼성과의 대결에서 선발 브라운이 나오자 “외국투수가 나왔으니 오늘을 잘 지켰지”라고 말했다.

서브넵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서브넵은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2일 현재 서브넵의 성적표는 타율 0.227, 홈런 2개, 4타점에 불과하다.

국내 선수는 제외하더라도 마이로우(롯데 0.311, 5홈런, 13타점), 데이비스(한화 0.299, 4홈런, 12타점), 호세(롯데 0.284, 5홈런, 13타점), 클리어(한화 0.254, 3홈런, 9타점), 피커링(SK 0.230 4홈런, 14타점) 등 8개 구단 외국인 타자와 비교해도 하위권이다.

올해 KIA에 입단한 서브넵은 당초 미국 트리플 A에서 3할타를 기록할 만큼 정교함을 자랑했고 스윙도 좋아 국내에서는 적어도 한 시즌 25홈런을 쳐낼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막상 무경을 열어보니 변화구 등

2일 현재 타율 0.227 부진

타구단 용병들 중 하위권

KIA, 제기량 발휘 기대

유인구에 약하고 몸쪽 높은 볼에도 매번 망망이가 나가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브넵의 부진으로 KIA의 중심타선도 흔들리고 있다.

4번 서브넵이 약하다 보니 투수들은 3번 장성호와 피해가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

결국 장성호도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오고 있다.

서브넵의 팀내 입지도 갈수록 좁아드는 양상이다.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서브넵의 퇴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즌 초반이니만큼 5월 한달 정도는 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감독은 “잘하는 선수도 자꾸 못한다고 하면 못하게 된다. 못하는 선수에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겠느냐”면서 “이제 한 달 지났다. 자신도 매우 답답해 한다. 5월 한달만 더 지켜보자”고 조금만 서브넵 흔들기를 경계했다.

서브넵에게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한국 잔류를 결정짓는 잔인한 달이 될 듯 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드보호’ 월드컵 경험 최강

박지성 등 최대 12명 예상
역대팀 중 有경험자 ‘최다’

“MF에 승부수
포백 전술 선택”

아드보카트 감독 밝혀

한국 축구대표팀의 2006 독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월드컵 참가 경험 면에서는 아드보카트호가 역대 최강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 것은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 아드보카트 감독이 구상 중인 최종 엔트리는 아직 베일에 가려있지만 이번 독일 월드컵에는 역대 가장 많은 월드컵 경험자들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사에서 월드컵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가 가장 많이 출전했던 때는 1990년 이탈리아, 2002년 한·일 대회 때다.

1990년에는 직전 1986년 멕시코 대회 멤버 중 최순호, 조민국, 변병주, 박경훈 등 9명이 다시 발탁됐다.

2002년에는 총 9명의 월드컵 유(有)경험자들이 나서 4강 신화를 써냈다.

1994년 대회 때는 6명이 월드컵 참가 경험이 있었고 1998년에는 최영일, 하석주 등 1994년 멤버 6명에 1990년 멤버 이상윤이 가세했다.

해외파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 등과 국내파 이운재, 김남일(이상 수위), 이천수(울산) 등 9명 정도의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은 독일 월드컵 승선이 유력하다.

송종국(수원)과 차두리(프랑크푸르트), 김병지(서울) 중에서도 1~2명은 아드보카트호 승선 가능성이 있어 최소 10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월드컵 경험자들이 독일행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미드필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포백(4-back)을 선택했다”

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일 발간된 ‘2006 FIFA 월드컵 독일 공식 가이드’ 인터뷰에서 포백 전술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팬들이 아직도 수비진에 걱정이 많다는 질문에 “그건 아마 히딩크호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스리백(3-back)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우리 팀이 미드필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파이브백이 되기 쉬운) 스리백을 쓰지 않고 포백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KBO 사무총장에 하일성씨 유력

공석중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으로 하일성(58·사진) KBS 해설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3일 “신상우 총재께서 하일성 위원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사무총장 인선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당일 기다려 달라

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KBO 정관에는 사무총장 인선 규정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재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명시됐으며 이사회는 8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동고와 경희대에서 선수생활을 한



하일성 해설위원은 졸업후 잠시 교편을 잡다 1981년 부터 KBS 해설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하일성 위원은 “신상우 총재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측근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다”고 내정 사실을 시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목)

▲메이저리그<토론토-보스턴>(07 : 55·Xports), <샌디에이고-LA다저스>(11 : 00·Xports)

▲장사 45주년 특집 ‘미셀 위 초청 SK텔레콤 오픈 골프대회 1R(14 : 00·MBC)

▲유소년축구(14 : 10·KBS1)

▲SK텔레콤 오픈 골프 1R(16 : 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 : 00·Xports)

▲프로야구<두산-KIA>(18 : 00·SBS스포츠), <SK-삼성>(18 : 00·KBS SKY SPORTS), <현대-롯데>(18 : 30·MBC ESPN)

5일(금)

▲PGA투어 와코비아 챔피언십 1R(05 : 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애틀-시카고W>(02 : 55·Xports), <세인트루이스-휴스턴>(08 : 55·Xports)

▲SK텔레콤 오픈 골프 2R(11 : 00·MBC

ESPN)

▲장사 45주년 특집 ‘미셀 위 초청 SK텔레콤 오픈 골프대회 2R(13 : 05·MBC)

▲K리그(서울-부산)(14 : 55·KBS1)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LG-두산>(13 : 50·SBS스포츠), <KIA-한화>(14 : 00·MBC ESPN), <현대-삼성>(18 : 00·KBS SKY SPORTS)

6일(토)

▲PGA투어 와코비아 챔피언십 2R(05 : 00·SBS스포츠)

수도 배관 (냉·온수난방) 세정업체
엘케이그린(주)
수도배관은 청소를 할까 싶지만...
수도에 모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십니까?

전국은 바다와 심에 폭~배웠다!
광주 창업 설명회
맛있는 바다
광주 창업 설명회